

2026년 상반기

신안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신안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TOP 6

01

민간이 떠난 항로,
신안군이 직접 잇다

02

찾아가는 그냥드림카,
섬 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다

03

현장에서 답을 찾다! 불합리안법개정으로
수산행정의 법적 사각지대 전면해소

04

기부에서 체류로 체류에서 (재)기부로
신안형 지정기부와 신안사랑패스로 만든
선순환적 고향사랑

05

AI를 활용한 자체개발로
시스템 개선 및 예산 절감

06

ESS 중앙계약시장,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에너지 상생 모델 구현

섬과 섬을 잇는 배,
주민의 일상과 행복을 잇습니다



왜? 적극행정인가?

민간 선사의 낮은 수익성으로 운항 기피가 발생하던
국가보조항로를 신안군이 직접 운영하여
작은 섬 주민의 생활권을 행정이 직접 책임짐.

사업의 주요 성과

- 작은 섬 주민 이동권 보장
- 공공성 중심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
- 선원 근무환경 개선



왜? 적극행정인가?

단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장 상담을 병행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푸드뱅크, 복지방문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동대 등과 연계하는 선지원·후연계 복지체계를 구축함.

사업의 주요 성과

-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 섬 지역 복지 접근성 향상
- 신속한 생필품 지원체계 구축

수산업의 법적 사각지대 전면 해소!

법령을 검토하고 개정하여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왜? 적극행정인가?

「양식산업발전법」 개정 건의를 통한 관리선 사용 절차 개선으로 어업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행정의 법적 사각지대를 줄여 적극행정 실현

사업의 주요 성과

- 어업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
- 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제도 일관성 확보
- 현장 의견이 정책 검토 과정에 실질 반영

신안형 지정기부와新安사랑패스로 만든 **선순환적 고향사랑**왜? **적극행정**인가?

기존 단순한 고향사랑기부제를 부서 협업을 통한 체류형 기부정책으로 전환하여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발생.

사업의 **주요 성과**

- 2025년 모금액 전년 대비 77.3% 증가
- 2025년 답례품 매출액 전년 대비 107% 증가
- 기부-체류-재기부 선순환 체계 구축

AI를 활용한 자체개발로 시스템 개선 및 예산 절감!

스마트한 혁신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왜? 적극행정인가?

매주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내부 행정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부용역이나 예산투입없이 AI를 활용해 관련 시스템을 자체 개발함

사업의 주요 성과

- 소요예산 0원! 자체개발로 예산절감
- 반복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효율 향상
- AI를 통한 행정업무 개선 가능성 제시



왜? 적극행정인가?

대규모 ESS 설비는 화재 우려와 경관 저해 문제로 주민 반대가 발생하기 쉽고, 사업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근거를 마련해 공유이익의 초석을 다짐.

사업의 주요 성과

- 전기저장장치(ESS) 설치로 인한 사업의 수익을 주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행 : 2026. 12월 예정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신안군 적극행정 ON

